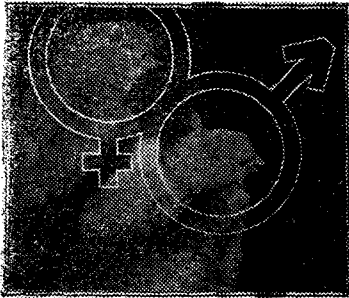


# 초생추 감별에 대한 考察



윤 경 중  
(서울부화장 대표)

- ◎ 제 1 회 : 감별의 역사와 전망
- ◎ 제 2 회 : 감별의 기술(상)
- 제 3 회 : 감별의 기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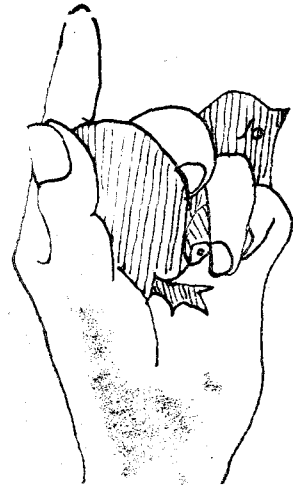
〈제 1 도〉 병아리 보정법

## 5. 감별법의 조작

### (2) 보정법(쥐는 법)

배분이 그치면 다음에는 홍문 개장으로 들어간다. 홍문 개장을 하려면 우선 병아리를 잡아서 왼손 손가락 사이로 하여 머리가 밑으로 들어가게 옮겨 천 다음 병아리몸에 압박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흔히 초심자들에게 있는 일이지만 병아리 쥐는 방법이 불량하면 홍문 개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병아리 심장을 압축하여 죽이는 일도 있고 또는 난황을 터뜨려 죽이는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아리가 다리(발)를 움직여서 개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고로가 급적이면 가볍게 무리하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 6. 홍문 개장법

병아리의 보정과 동시에 홍문을 개장하여야 한다.

홍문 개장은 왼손 엄지(1지)와 오른손 엄지(1지)·힘지(2지)를 이용하여 개장한다.

제 2도와 같이 왼손 1지와 오른손 2지는 팔자형을 이루어 약간의 압력을 주는 동시에 오른손의 1지는 앞으로 당기는 듯 하면서 추켜 민다.

이 모양을 표시한다면 짧은 중기의 고름을 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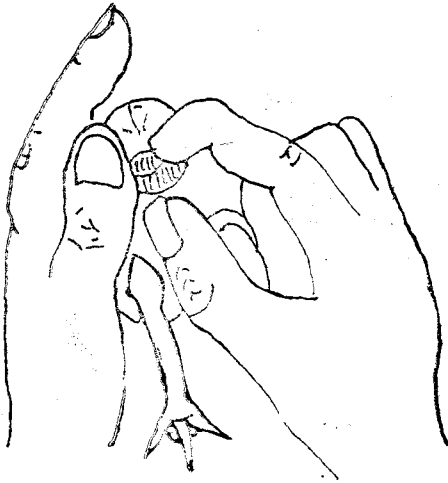
는 형식으로 하여 벌려 찢다는 의미와 일치할 줄 안다.

이와 같이 연약한 홍문을 가볍게, 무리가 가지 않게 개장을 하려면 손끝이 부드럽고 가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으로 오른손의 엄지 손톱을 길러서 홍문 개장에 편의를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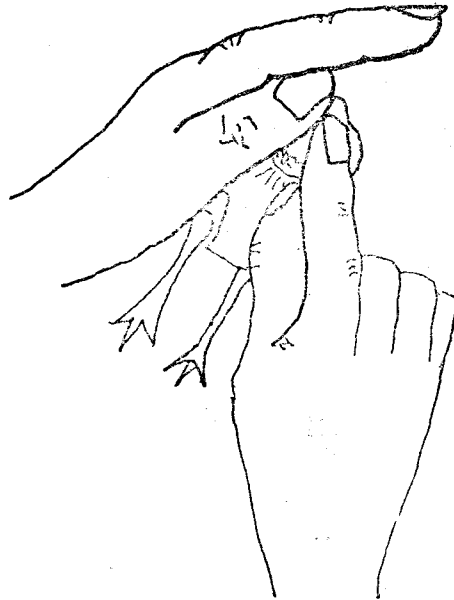
제 2도와 같이 홍문 개장이 잘 안 되면 손끝을 꼬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돌기가 나타나지 않아서 소기의 감별 성적을 올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 연습 당시부터

< 제 2도 > 홍문 개장법

① 완전한 개장법



② 불완전한 개장법



일정하게 곧 바로 밀어올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왼손 엄지와 오른손 협지(2지)의 팔자형을 이룰 때는 홍문의 뒤끝 1/3 정도는 압축시켜 직장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하며, 그래야만 돌기가 정상으로 튀어 나온다.

일단 팔자형의 모형으로 개장을 했어도 돌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심한 압축이나 돌기 부분을 비비다 보면 병아리의 심장이 장애를 받아 죽는 수가 있다.

이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병아리를 오른손으로 잡아서 옮기면 왼손으로 받아서 죽시 배분하고 왼손이 배분을 하는 순간 오른손은 다시 병아리를 잡아 보정의 준비를 함으로 신속·정확·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므로 빠른 시간에 많은 감별을 할 수 있게 된다.

7. 생식돌기에 대한 해설

홍문 개장이 완전히 끝나면 생식돌기에 대한 관찰을 해야 한다. 생식돌기는 자웅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형태에 따라 설명이 달라야 할 줄로 안다.

사람의 얼굴이 자자 다름과 같이 돌기 자체도 전부 다르다. 그러므로 형태·색채·빛깔 등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지만 이것을 그림이나 글로 설명하여 완전히 이해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다만 실제 당한 그 당시의 감각에 따라서, 관찰자의 관찰력에 순응하여 정밀한 형태를 판단하여야 될 줄로 본다. 그러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각한 것이 다음의 몇 가지 그림과 해설이다.

(1) 배설공(홍문주벽)의 해설

그림과 같이 직장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에 많은 주름벽이 있다. 이 주름벽과 외부벽과의 사이에 돌기가 붙어 있다.

제3도에 대한 명칭은 필자가 생각하는대로 적은 것으로 다른 감별사들도 이대로 부르지만 이것이 꼭 표준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생식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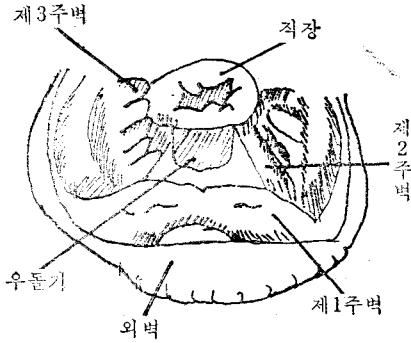
① 응추의 생식돌기

진술한 바와 같이 응추의 형태 구성은 여러가지로 되어있다. 이것을 개개별로 차이점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강 3가지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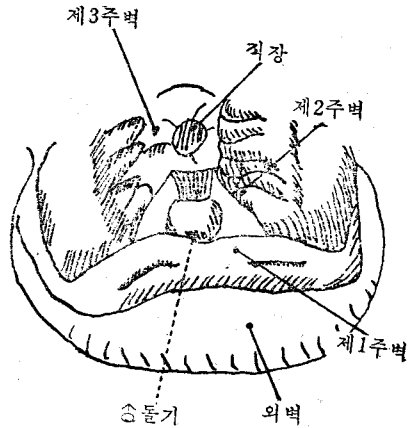
a. 정상형 : 분열되어 있지 않고 동그랗게 생겨

〈제 3도〉 자충의 홍문주벽

① 자충의 홍문주벽



② 웅충의 홍문주벽



있으며 늘기의 솟아난 기부(基部)에 든든히 되어 있다  
 b. 분열형 : 돌기가 2분(二分)으로 갈려 있다.  
 c. 반전형 : 홍문을 개장하면 개장과 동시에 돌기 자체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웅충돌기에 대한 특징을 말하면

- a. 대개가 동그랗게 되어 있다.
- b. 광택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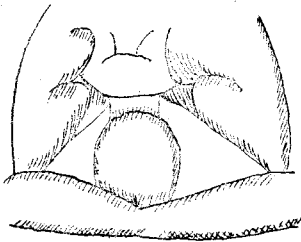
c. 윤곽이 선명하며 탄력성이 있고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변하지 않고 신축성이 적다.  
 d. 돌기의 기부가 제1이나 제2주벽의 근방으로 깊숙히 되어 있다.

e. 돌기가 팽팽하여 보는 점에서 외벽과의 차이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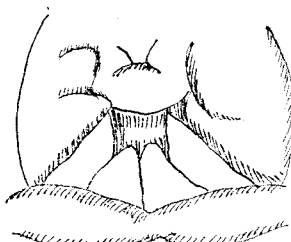
② 자충의 생식돌기

〈제 4도〉 추돌기의 여러가지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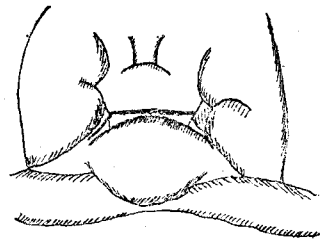
① 정상형



② 분열형



③ 반전형



자충의 생식돌기도 웅충과 같이 다양각색으로 되어 있다. 자충도 잘 보이는 형이 있지만 거의 웅충에 비하여 돌기 자체가 퇴화되어 보기 힘든 것이 많다. 대표적 형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정상형 : 완전 퇴화되어 돌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 b. 반전형 : 웅충과 같이 돌기가 외부로 전향되어 있으며 연약성을 띄웠다.
- c. 돌출형 : 이것은 기부 자체도 없이 특 솟아난 것을 말한다.

자충 생식돌기의 특징을 들자면

- a. 비교적 평평하며 연약하게 되어 있다.
- b. 광택이 약하고 외벽과의 근소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 c. 선명하지 않으며 탄력성이 없고 변형하기 쉽다.
- d. 돌기의 기부가 뚜렷하지 않아 거의 형태가 반전되어 있다.
- e. 독립성이 거의 없다.

(ㄷ) 횡반 푸리머스류종의 생식돌기

횡반 푸리머스류종의 돌기는 백색레그혼과 같지만 흑점이 있어서 별난 돌기 모양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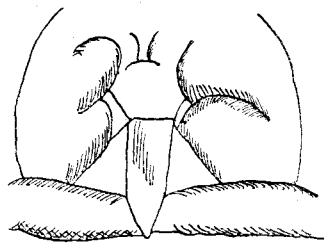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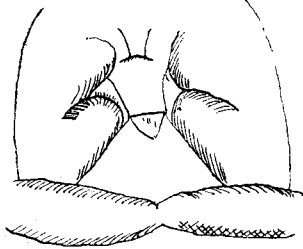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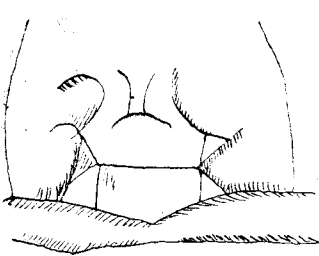
□ 연재 · 초생추 감별 □

<제 5도> 자추돌기의 여러가지 모양

① 정상형

② 반전형

③ 돌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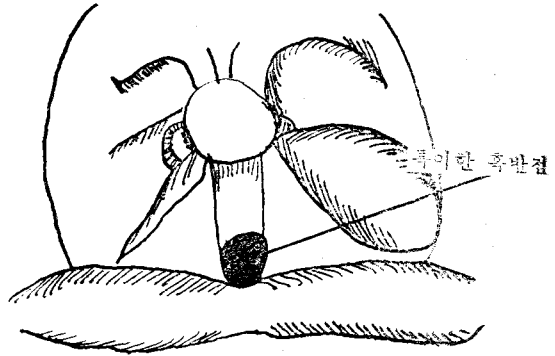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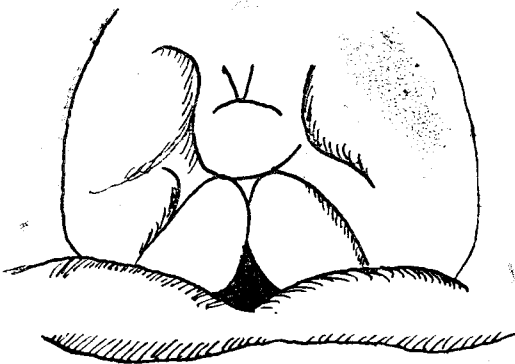
다. 과거 필자가 간혹 보면 엄연한 감별사면서 청반 푸리머스룩종의 감별은 오감을 많이 하

는 것을 보았다. 감별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나 참고가 될까 하여 그림으로 설명한다.

<제 6도> 황반 푸리머스룩 응추의 정상형과 분열형

① 정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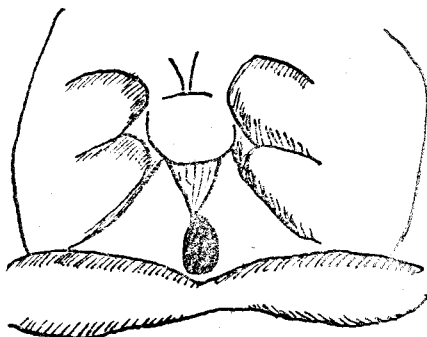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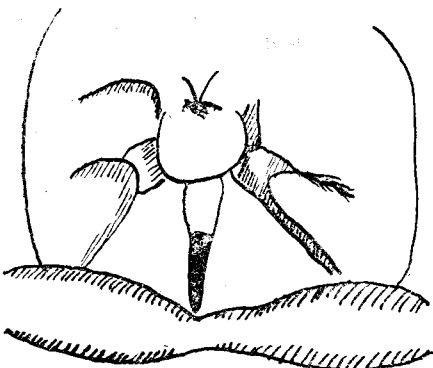
② 분열형



<제 7도> 청반과 황반 푸리머스룩의 자추 반전형

① 청반 푸리머스룩의 자추 반전형

② 황반 푸리머스룩의 자추 반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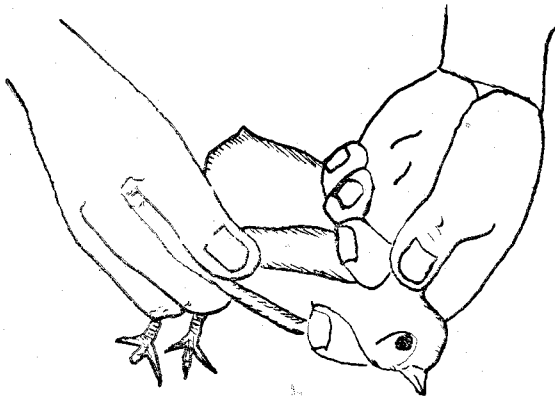
제6,7도 외에도 오리 칠면조 등의 감별법에 색다른 돌기 해설이 있으나 제한된 지면이므로 생략하고 감별사가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점으로 끝맺고자 한다.

8. 병아리 해부로 성(性)의 검정

병아리 자웅감별을 즉석에서 확실하게 결정하는 데는 병아리 자체를 해부하여 그의 생식기가 고

〈제 8도〉 병아리 해부 방법

① 종으로 반절하는 법



환이나 난소나 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해부에는 종(從)으로 반을 가르는 법과 우측 복부를 왼손으로 보정하여 좌측 복부를 찢는 방법이 있다. 찢는 방법은 제 8도를 보면 그림에서 납득이 갈 것으로 본다.

성의 표식은 등뼈 즉 폐가 있는 곳에 나란히 양쪽에 달려 있으며, 고환은 살눈형으로 광택이 있고 난소는 같은 위치에 기름덩이 같은 조그만 덩이로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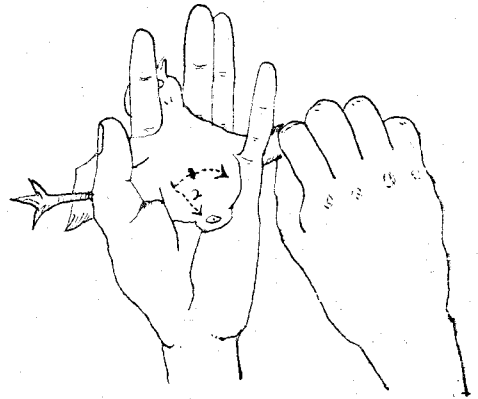
9. 감별에 대한 요령

순서가 뒤바뀐 감이 없지 않으나 몇 가지 요령을 더 기술하려고 한다.

우선 감별에 임하려면 병아리를 구하되 처음에는 싼 값이나 댓가없이 얻을 수 있는 웅추·약추를 구해야 한다. 웅추는 비교적 돌기의 이해력이 빨라 초심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연습과정에 유리하다. 웅추는 험값으로 구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돌기 파악이 쉽고 간단히 익혀 두면 되나, 처음부터 무감별을 다루면 혼동할 우려가 많아 납득이 지연되곤 한다.

약추의 무감별 연습은 자신이 몇 번이고 되풀이 개장한 다음 즉석에서 해부하여 판단하므로써 자신의 실력 파악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력의 자신을 가질 수 있어 배우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② 병아리의 오른쪽 복부를 찢는 방법



여하간 감별 연습은 제한된 수수로 끝을 맺으려 하지 말고 가급적 많은 수수를 만점으로써 빠른 시일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병아리는 가급적 감별에 적당한 시간인 발생 후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다루어야 한다 10시간을 초과하면 돌기가 위축되어 돌기 파악이 곤란하고, 5~6시간 이내에 하면 배안에 난황이 그대로 있어 다루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난황을 터뜨려 죽이는 수도 간간 초심자에게는 있다. 그러므로 적기 감별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매사가 모두 그렇듯이 처음 시작 당시의 동작이 버릇이 되어 몸에 배게 되므로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감별사에게 기본 동작을 배우는 것이 좋다.

웅추로 며칠 연습하다 보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고로 실증을 느껴 무감별을 만지려고 하나 이는 감별 기술 습득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감별에서 새로운 신비성을 찾는 것보다 감별사가 해 놓은 곳에서 자추를 찾아내는 연습이 더욱 효과적이다. 감별도중 의문 돌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옆의 감별사에게 물어서 1차 의문을 풀 다음 해부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지금까지 초생추 감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써보았다.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